목회자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편지

주후 2023년 6월 26일 제863호

**여름사역기간, 리더들의 성장을 위하여**

길고 길었던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 교회의 여러 사역이 모두 재개된 지금, 본격적인 여름사역의 준비로 한창 바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전과 같이 수양회와 단기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나 교회와 리더 개개인의 상황은 예전과 같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어쩌면 지난 몇 년간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영적 상황이 정체 되거나 위축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톰 레이너는 그의 책 『나는 믿습니다』에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믿는다고 강력히 선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미처 개개인의 영적 성장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원래 하던 공동체 사역에 복귀하기에 급급했다면, 아무리 바쁜 사역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여름 사역기간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톰 레이너가 제시하는 영적 성장을 위한 기본 방침들을 힌트로 하여, 올 여름 사역 교회 리더십들이 어떻게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톰 레이너는 개개인의 성화 과정의 속도는 서로 다르며, 때론 그 성장 과정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반드시 현실이 되고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당면한 현실이 얼마나 어려울 지라도 여전히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 없는 상속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함께 거하시며 각 사람을 성장시키십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의 상황마다 조금 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교회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톰 레이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추구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기간 동안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 성장의 방법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합시다.

**첫째, 여름 사역기간 특별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라**

톰 레이너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노력이 영적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오히려 시급한 사역을 앞두고, 특별히 단기선교나 수양회와 같이 집중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상황을 앞둔 때에는 종종 생략되기 쉽습니다. 이번 여름 특별한 사역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기간에 맞춘 특별 성경 읽기 계획을 새롭게 세워 사역팀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팬데믹 이후 사역을 위해 더욱 기본에 집중하자는 마음을 공유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 읽기 계획을 점검하십시오.

**둘째, 여름 사역기간 특별 소그룹 모임 일정을 세우라**

톰 레이너는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역자들이 각기 맡은 사역을 위해 흩어져 집중하고 있는 여름사역 기간, 의도성을 가지고 휴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별 소그룹 모임 일정이 필요합니다. 동역자들이 바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만나 서로를 위해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셋째, 여름 사역기간 복음 전도 시간을 마련하라**

올 여름 단기선교와 같은 전도에 특화된 사역에 참가한다면 이미 영적 성장의 기본요소 중 하나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 사역의 경우엔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 전도에 쏟을 시간과 에너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 사역 기간 평소 품고 기도하던 전도대상자를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며,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제시할 약속을 미리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 휴가기간은 전도대상자에게도 소중한 기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특별한 기간 좋은 계획을 세워 만나는 관계는 특별함을 더할 것이며, 새로운 복음 전도의 귀한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기간이 단순히 사역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본질적인 영적 성장이 온전히 일어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 이 글은 『나는 믿습니다』, 톰 레이너, 국제제자훈련원. 12장 내용 일부를 발췌 및 각색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제자훈련원

Called to Awaken the Laity

Disciple-making Ministries Intꡑl

06721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8길 98

전화 : 02) 3489-4200

팩스 : 02) 3489-4209

E-mail : cal@sarang.org

www.discipleN.com, www.sarangM.com